

# 서양 남성 속옷의 변천에 관한 고찰

-고대에서 근세까지-

김 주 애

경상대학교 의류학과

## Changes of Western Men's Underclothes -from Ancient Ages to Early Modern Ages-

Ju-Ae Kim

Dept. of Clothing and Textiles, Gyeongsang National University

(1999. 9. 7 접수)

### Abstract

The purpose of study examined the changes of the man's underclothes from the ancient ages to the early modern ages. The method of study researched literatures and possessions of the museum.

In ancient ages, a suit of clothes had the functions of both underclothes and outer garments. In middle ages, underclothes were not exposed and the importance was not recognized while they were worn to show the sense of sin and humility or to punish criminals.

In early modern ages, the importance of underclothes recognized as they were exposed. In Renaissance period, the fashion of the day influenced much on the underclothes. In Baroque ages, the functions of underclothes were different according to sexes and men wore underclothes to show their social status. As the outer garments were shortened, shirts were also conspicuously exposed. In Rococo ages, drawers were tightened due to the influence of outer garments, men exposed their shirts to show the social status and underclothes were usually worn to express sexual attraction.

Men's underclothes had the functions of class distinction from the ancient ages to the modern ages, except the middle ages and underclothes had the additional functions such as supporting body-shape and sex attraction. The fashion of the day influenced on the changes of the shapes of men's underclothes and the changes of outer garments were reflected on underclothes.

**Key words:** men's underclothes, functions, utility, sex attraction, social rank;

남성 속옷, 기능, 실용성, 성적매력, 사회적 지위

### I. 서 론

완벽한 옷차림이란 겉옷과 속옷의 조화를 의미하

며 속옷의 형태에 따라 겉옷의 의상미가 돋보이게 되고 의복의 실루엣이 연출되므로 속옷의 기능은 매우 중요하다. 또한 속옷은 겉옷의 기본이 되어 겉옷이 인간의 내면적 욕구와 미의식을 잘 표현하도록

록 도와주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리고 속옷은 겉옷과 함께 시대 변화에 따라 다양한 모습으로 변화하면서 그 시대의 의상미를 돋보이게 하는 기능미와 장식미를 가져왔다.

그러나 현재까지의 복식 문화에 관한 연구는 복식을 각 시대의 건축, 조각, 회화, 공예 등 예술양식과 관련하여 주로 겉옷을 중심으로 한 것이며, 속옷에 대한 연구는 극히 부진한 편이었으나 최근 속옷에 대한 관심과 중요성이 크게 인식되면서 복식 산업계에서는 속옷의 디자인 및 기능성에 대하여 많은 비중을 두고 있는 추세이다.

속옷에 대한 기존의 연구를 보면 재질에 따른 속옷의 기능성을 고려한 연구<sup>1)</sup>나 속옷의 겉옷화에 대한 유행현상<sup>2-5)</sup> 등의 연구가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이들 연구들은 주로 여자의 속옷에 관한 것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sup>6-9)</sup>, 남자의 속옷에 관한 연구<sup>10-12)</sup>는 거의 다루어지지 않았다. 그 이유로는 남성복이 여성복에 비하여 의복의 종류나 실루엣의 변화가 적을 뿐 아니라 단순한 외형을 가지고 있는데서 비롯된 것이라 여겨지며 유물 또한 거의 남아 있지 않아 연구 대상으로서의 관심이 적은 탓이라 생각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시대적 변천에 따른 속옷의 기능과 역할, 그리고 시대적 배경과 속옷 변천과의 관련성을 알아보고자 한다. 또한 남자 겉옷의 영향이 속옷에 어떻게 적용되었는가를 알아본다.

고대의 경우에는 남자 속옷에 대한 자료가 부족하고 한 벌을 착용한 경우에 속옷으로 간주하지 않아 복식사가들 중에는 중세부터 속옷의 역사를 다루는 경우도 있다<sup>13)</sup>. 그러나 속옷이란 피부에 접하여 있고 겉옷 속에 착용되어 완전히 혹은 부분적으로 가리워지는 것을 칭하기 때문에, 고대의 경우 한 벌의 천으로서 겉옷과 속옷을 겸하였고, 그 한 벌 자체가 피부에 접하여 속옷의 역할을 하였다. 또한 두 벌 이상을 착용할 때에는 속에 착용한 것이 겉옷 속에 가리워져 속옷의 역할을 하였으므로 연구 범위는 고대부터 설정하였다. 이와 같은 고대 속옷류 중에서 튜닉, 키튼, 칼라시리스 등은 속옷과 겉옷의 역할을 함께 하였으나 한 벌 착용시 밖으로 노출되는 경우가 많고, 속에다 또 다른 속옷을 착용하여

속옷의 역할보다 겉옷의 역할이 두드러졌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속옷의 항목에서 제외하였다. 그러나 속옷의 역할을 하였던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하였다. 학자들의 견해<sup>14-16)</sup>를 참고로 하여 속옷의 범위로는 가장 안쪽에 착용하여 피부에 밀착된 의복 및 겉옷 안에 입는 중의(中衣) 개념의 속옷류를 모두 다루었다.

본 연구는 남자 속옷의 특징과 시대별 변천 과정을 통하여 고찰 한 것으로 향후 남자 속옷의 패턴이 어떤 식으로 지향되어야 하는 가를 가능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속옷이 겉옷과 완전한 조화를 이루게 하는 복식문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사료된다. 그리고 본 연구를 바탕으로 남자 속옷과 여자 속옷이 어떠한 관련성을 가지고 변화, 발전되어 왔는가를 비교 검토할 수 있는 기초자료가 될 것으로 생각된다.

## II. 속옷의 정의

속옷은 피부에 접하거나 겉옷에 의하여 완전히 혹은 거의 가리워지는 모든 품목을 일컫는다. 속옷은 영어로 intimate apparel이라 하며 이것은 넓은 의미의 속옷 전반을 가르킨다. intimate apparel은 underwear와 innerwear로 분류된다. underwear는 피부에 접한 속옷류를 말하며 innerwear는 주로 여자용 속옷을 의미한다<sup>17)</sup>. underclothes는 underwear와 같은 의미로 사용되며, 피부에 접하거나 겉옷 속에 착용된 모든 속옷류를 총칭한다.

또한 속옷은 내의(內衣)<sup>18)</sup>, 리의(裏衣)<sup>19)</sup>, 촌의(襯衣)<sup>20)</sup>, 촌삼(襯衫), 충(衷)<sup>21)</sup>으로도 불리어진다. 이러한 속옷은 일반적으로 추위로부터 신체 보호, 의복 형태의 유지, 청결유지, 선정적인 기능 및 신분 표시 등의 기능을 가진다<sup>22)</sup>.

## III. 남자 속옷의 특징과 변천

### 1. 시대별 속옷의 특징

#### (1) 고대

고대의 속옷은 대개 드레이퍼리형과 품이 넉넉한 튜닉이 이용되었으나 크리트에서는 밀착된 형태도

착용되었다. 크리트에서 착용된 콜셋 벨트는 남자 콜셋의 원조로 볼 수 있으며 크리트와 에트투리아에서 착용한 요의는 페리조마(perizoma)<sup>26)</sup>라 칭하였고, 고대 로마는 추운 기후로부터 신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수부쿨라(subucula)<sup>25)</sup>, 페미날리아(feminalia)<sup>26)</sup> 등의 속옷을 착용하였다.

의복을 착용할 때에 한 벌인 경우에는 그 자체가 겉옷과 속옷의 역할을 겸하였으므로 고대 의복은 속옷과 겉옷의 성격을 동시에 나타내었으며 두 벌을 착용할 때에는 안에 착용한 의복이 속옷의 역할을 하였다.

의복을 겹쳐 착용하는 것은 상류층의 표시였으며, 또한 얇은 천의 옷을 여러겹 겹쳐 착용하여 시 스루(see through) 현상에 의한 복식미를 애호하였다.

## (2) 중세

중세의 속옷 중 셔츠는 14세기 중엽 이후로 길이가 짧아졌고, 양옆은 막히거나 트였으며 소매에는 커프스가 없었다. 그리고 14세기에 셔츠의 목밴드가 나타났으며 15세기의 셔츠는 높은 칼라가 이용된 시기를 제외하고는 목둘레선이 길이 파였다.

드로워즈는 초기에 브레(braies) 혹은 브리치즈의 명칭으로 이용되었으며 실제로 12세기 후반에 브레가 속옷화되었다. 13세기에 이르러 브레는 품이 풍성하고 짧았으며 꾸리세(coulisse)(끈으로 만든 옷단: 천의 가장자리) 속으로 뒤집혀진 상태로 무릎에서 끈으로 매여지거나 단 부분이 불균일한 형태였다. 14세기에는 허벅지 상부 길이 정도로 짧고 밀착되어 다리의 가장자리에 슬릿이 있었다. 중세 말기에 브레는 요의처럼 짧게 되었으나 농부와 노동자는 긴 브레를 계속 유지하였다. 1450년경부터 착용된 언더듀블렛 형태인 페티코트는 겉옷에 의하여 감추어지고 보온의 효과를 증대시켜 속옷의 기능을 나타내었다.

중세에는 속옷의 개념이 겉옷처럼 변화되어 가는 시대정신을 나타내지 못하여 14세기 중엽에 나타난 신분 표시와 성적 매력의 겉옷에만 적용되었다. 속옷은 피부 보호와 겉옷을 보호하는 실용적 목적을 가졌고 노출되지 않아 그다지 중요하게 인식되지 않았으며 육체에 접한 속옷은 죄의식이나 겸손함을

상징하였다<sup>27)</sup>.

## (3) 르네상스 시대

남자 겉옷의 슬래싱은 그 속에 착용한 우수한 품질의 속옷을 노출시켜 셔츠나 셔츠를 가장하는 안감을 두드러지게 하여 새로운 패션을 만들었으며 이것은 신분 표시로도 이용되었다. 노출된 웨이스트 코트와 콜셋으로 조여진 허리도 신분 표시로 이용되었다.

16세기 전기에 셔츠의 목둘레선은 낮은 수평선으로 가슴 상단부가 노출되면서 어깨 넓이를 강조하게 되어 남성미를 간접적으로 나타내었다. 그러나 후기에 셔츠의 목둘레선에서 많은 변화가 이루어져 어깨의 강조 대신 높아진 목둘레선과 증가된 목장식이 상류층의 새로운 상징이 되었다. 셔츠는 품질이나 재단 방법 외에도 트리밍과 장식의 정도에 따라 신분이 표시되었으며 셔츠의 조임에는 끈 외에 단추가 도입되었다.

중세 브레로 부터 유래된 드로워즈는 직선 재단 외에 신체에 맞게 사선 재단법이 적용되었으며 트로즈(trouses), 스트로즈(stroussers)의 명칭으로도 불리었다.

겉옷과 마찬가지로 콜셋으로 허리를 조여 속옷에도 인체미를 과장되게 강조하던 시대적 배경을 반영하였다. 또한 직물 산업의 발달은 속옷에도 영향을 미쳐 속옷의 재료가 다양해졌으며, 사치 금지령이 속옷에까지 적용되었던 점으로 미루어 보아 상류층의 호화스러웠던 의생활의 일면을 엿볼 수가 있다.

르네상스 시대에 속옷의 기능은 신분 표시와 성적 매력을 나타내는 역할이 강조되었으며 남녀 모두 속옷의 부풀림에 의한 과장된 의복의 실루엣을 연출하거나 특정 신체 부위를 강조하였다. 따라서 이 시대의 속옷의 기능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었고 당시 복식 의장미를 표현하는데 있어서 겉옷 이상의 장식적 요소를 연출하게 되었다.

## (4) 바로크 시대

1640년경에 이르러 짧아진 두블렛과 1660년대 이후의 웨이스트코트 끝과 브리치즈의 상단부 사이에

빠져나온 셔츠의 노출, 그리고 손목의 긴 러플은 당시의 상류층 남자의 사회적 지위를 나타내는 수단이 되었고 셔츠는 노출 부분이 많아지면서 더욱 중요한 의복으로 발전되었다<sup>2)</sup>.

하프 셔츠는 더울 때 착용하여 속옷의 기능을 하게 되었고 추울 때는 보온을 위하여 하프 셔츠 대신 웨이스트코트를 착용하였다.

드로워즈는 풍성하고 각이 진 짧은 트렁크 형태의 것과 길이가 긴 형태의 두 종류가 있었다.

중세에 속옷으로 이용되었던 웨이스트코트는 바로크 시대에 단독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나타나므로써 남자 속옷의 역사를 통하여 한 때는 속옷의 역할을 하던 것이 나중에는 겉옷으로 이용되는 현상을 알 수 있다.

건과 린넨으로 된 의복이 모에 비하여 해충의 피해가 적다는 것이 인식되어 후에 신체적 청결함이 강조될 때까지 모로 만든 속옷은 좀처럼 착용되지 않았다. 이전까지 속옷의 조임에는 끈과 리본이 이용되었으나 이 시기에는 단추도 이용되었다.

이 시대의 속옷의 기능은 실용적이라기 보다는 신분 표시와 성적 매력이 강조되었다. 여자 속옷과 마찬가지로 남자 속옷도 중요하게 인식되었으며 이 시기부터 남녀 속옷의 기능이 분리되었다. 즉 여자 속옷은 매력을 끌기 위한 반면에 남자 속옷은 주로 사회적 신분을 표시하기 위하여 착용되었다.

#### (5) 로코코 시대

웨이스트코트를 통하여 노출된 셔츠는 이성에게 매력적으로 인식된 반면에 자복은 착용자의 사회적 지위를 표시하였다. 브리치즈로 부터 분리된 라이닝은 드로워즈를 대신하거나 또는 부가적으로 착용되었다. 1770년경 브리치즈가 신체에 맞게 됨에 따라 드로워즈의 길이는 더욱 짧아지고 밀착되어 겉옷의 변화가 속옷에 반영되었다

웨이스트코트는 허리 길이로 짧아졌으며 1760년대에는 칼라가 달렸다. 1780년경에는 질레 또는 베스톤이 웨이스트코트로서 이용되었다. 그리고 성적 매력을 나타내기 위하여 장딴지 패드로써 장딴지의 매혹적인 형태를 강조하였고 콜셋도 착용하였다.

로코코 시대 초기에 속옷은 노출되어 과시되었으

나 후기에 다리 형태를 과시한 디자인이 유행되었고 슈트가 밀착되어 속옷을 과시할 수 없게 되었다. 즉 노출과 가림의 차이점으로 인하여 남자 속옷은 애매모호한 이중적인 면을 지녔다. 18세기 후기에 남자 속옷은 성적 매력이 사라졌으나 셔츠의 앞과 커프스는 신분 표시를 유지하였다.

## 2. 시대별 속옷의 종류 및 기능

<표 1>은 고대에서 근세에 이르기까지 남자 속옷의 종류 및 명칭을 시대에 따라 표기한 것이다. 이 표로부터 고대 남자 속옷은 중세 및 근세를 통하여 현대까지 여러 명칭으로 유지되어 왔으며 특히 근세에 이르러 속옷의 종류가 다양해졌음을 알 수 있다.

의복을 신체에 착용되는 형태를 중심으로 분류하면 권의형(卷衣型, 架裳衣: drapery), 관두의형(貫頭衣型: pancho), 전개형(前開型: caftan), 통형(筒型: tunic), 각의형(脚衣型: trousers) 등으로 나눌 수 있다. 고대에서 근세까지 착용한 남자 속옷류에서 통형에 속하는 품목으로는 언더튜닉, 수부콜라, 셔츠 등이 있으며, 각의형으로는 요의, 페리조마, 수부리가쿨름, 리시니움, 페미날리아, 브레, 드로워즈 등이 있다. 또한 페티코트, 웨이스트코트, 베스트, 질레 등은 전개형의 분류에 포함시킬 수 있다.

<표 2>는 시대별 남자 속옷의 기능을 나타낸 것으로 고대, 중세, 근세를 통하여 속옷이 갖는 기능 중 중세를 제외하고는 고대에서 근세까지 신분 표시의 기능을 공통적으로 유지하였음을 알 수 있다. 고대, 중세와는 달리 근세에 이르면서 신분 표시 외에도 형태 유지나 선정적인 기능이 속옷의 새로운 기능으로 적용되었다. 특히 로코코 시대에는 새로운 속옷 품목이 개발되어 남자의 매력을 나타내기도 하였다.

르네상스 시대에 남자의 허리를 조인 콜셋은 넓은 어깨를 강조하여 그 시대에 인체를 과장하던 모드에 따라 의복 형태를 유지하기 위하여 착용되었으나 로코코 시대의 콜셋으로 조여진 가는 허리는 이성에게 매력적으로 보여졌다. 또한 바로크 시대에는 셔츠의 앞이 신분을 과시하였으나 로코코 시대에는 이성에게 매력적으로 여겨져 선정적인 기능은

〈표 1〉 시대별 속옷의 변천 과정

시대	B.C3000	B.C2000	A.D5	12C	13C	14C	16C	17C	18C	20C	
고대	이집트	요의									
	메소포타미아	요의 언더튜닉									
	크리트	요의 롤셋벨트									
	그리스	페리조마									
	에트루리아	페리조마, 언더튜닉									
	로마	수부리가쿨름, 리시니움 수부쿨라 페미날리아									
중세	언더튜닉→세앵즈→슈미즈→셔츠 -----▷ 브리치즈→브레 -----▷ 브레 페티코트-----▷										
	르네상스 시대	드로워즈(◁ 브레)-----▷ 나이트클로즈 -----▷ 웨이스트코트(◁ 페티코트)→베스트,질레 쿨셋									
근세	바로크 시대	하프셔츠 --▷									
	로코코 시대	장딴지패드 라이닝 쿨셋 -----▷									

〈표 2〉 시대별 속옷의 기능

시 대	기 능	
고 대	신분 표시(두매 이상 겹침), 신체 보호(페미날리아)	
중 세	신체 보호(실용적 기능, 페티코트: 보온)	
근 세	선정적인 기능(초기: 셔츠의 낮은 목선-넓은 어깨) 신분 표시(슬래쉬: 셔츠의 노출, 셔츠의 높은 목선, 쿨셋, 재료) 형태 유지(쿨셋)	
	바로크 시대	신분 표시(남: 셔츠의 앞) 선정적인 기능(여)
	로코코 시대	선정적인 기능(셔츠의 앞, 장딴지 패드, 쿨셋) 신분 표시(자붐)

로도 이용되었다. 이러한 점으로부터 겹옷을 통하여 셔츠가 노출되는 상황이 같더라도 시대에 따라 기능이 다르게 적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 3. 시대별 속옷의 형태

시대 변천에 따라 남자 속옷 중에서 특히 많은 변화가 이루어졌던 셔츠와 드로워즈의 형태 변화를

〈표 3〉 셔츠의 형태 변화

시대	고 대	중 세	근 세		
			르네상스 시대	바로크 시대	로코코 시대
형태		A B C	A B	A	A
			C D	B	
		D E F	E	C	B
특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짧고 좁은 언더튜닉</li> <li>· 인테리어 튜닉, 수부볼라</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A: 중세 초기-좁은 소매, 긴 언더튜닉, 둥근 목선</li> <li>B: 세엥즈</li> <li>C,D,E: 14세기-중엽 이후 좁아짐, 양쪽트임: 有, 無</li> <li>커피스 없는 풍성한 일직선 소매</li> <li>F: 15세기-손목밴드, 깊이 파인 목</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A: 낮은 목선</li> <li>B: 각이 진 좁은 목밴드</li> <li>C: 프릴</li> <li>D: 높은 목선(1525년 이후) 목과 손목 밴드</li> <li>E: 러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A: 레이스, 프릴로 장식된 목트임 끈, 단추 길고</li> <li>풍성한 비숍소매</li> <li>B: 크라밧</li> <li>C: 스테인커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A: 각이 진 단 풍성한 몸통 목밴드</li> <li>B: 돌출된 자복 뒤가 긴 크랩 옆트임</li> </ul>

〈표 4〉 드로워즈의 형태 변화

시대	고 대	중 세	근 세		
			르네상스 시대	바로크 시대	로코코 시대
형태	A				
	B	A C	A		
	C	D E F	B		
특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A: 요의</li> <li>B: 페리조마</li> <li>C: 페미날리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농민: 발목길이인 팔탈분, 끈(허리), 거들로 묶음</li> <li>A,B: 12세기 후반-엉덩이 풍성, 앞트임 소멸</li> <li>다리 아래쪽 불균일한 재단</li> <li>C: 13세기-무릎길이, 넓은 다리, 풍성한 엉덩이</li> <li>허리밴드가 없는 거들, 꾸리세, 무릎 끈</li> <li>D,E: 14세기-짧은 브레, 슬릿(앞, 옆쪽)</li> <li>F: 15세기 전반-매우 짧은 브레</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A,B: 무릎 발목 길이</li> <li>B: 사선 재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풍성하며 각이 진 형태</li> <li>· 긴 형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무릎에서 묶은 짧고 풍성한 형태</li> <li>· 끈이나 단추로 허리를 조임</li> </ul>

도해로 나타내면 <표 3> 및 <표 4>와 같다.

<표 3>은 셔츠의 형태 변화를 나타낸 것으로 시대 변화와 함께 셔츠의 형태는 보다 정교하게 디자인된 의복 형태로 변화됨을 알 수 있다. 고대의 언더슈팅이 중세에는 세앵즈(chainse), 슈미즈, 셔츠라는 명칭으로 이용되어져서 근세에는 셔츠라는 명칭으로 그대로 적용되었다.

<표 4>는 드로워즈의 형태 변화를 나타낸 것으로 중세에는 풍성한 브레가 겉옷의 영향으로 점차 짧아지고 밀착되는 변화 과정을 알 수 있다. 르네상스 시대에는 사선 재단법의 적용으로 신체에 밀착되게 되었으며 자수를 놓음으로서 장식적인 요소도 가미됨을 알 수 있다. 바로크 시대에 각이진 형태의 재단법과 로코코 시대의 단추 이용 등으로 근세에 들어와 드로워즈가 상당히 발전되어졌다.

#### IV. 결 론

본 연구는 고대에서 근세까지 서양 남자 속옷의 변천에 대하여 고찰한 것으로 그 결과를 총괄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고대에는 의복을 착용할 때에 한 벌인 경우에 그 자체가 겉옷과 속옷의 역할을 겸하였으며, 의복을 겹쳐 착용하는 것은 상류층을 나타내는 신분의 표시였다.

중세에는 종교적인 금욕주의의 영향으로 육체는 부끄러움이나 죄의식과 관련되었고, 이러한 의식이 속옷에 적용되어 속옷은 겸손함을 상징하거나 처벌의 경우에 착용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보편적으로 속옷은 노출되지 않아 중요하게 인식되지 않았고 실용적 기능이 강조되었다. 당시에 유행한 허벅지 길이의 브레는 현대의 남자 수영복 팬츠나 박스형 팬츠와 유사한 형태였으며, 그리고 중세 말기의 짧은 브레는 현대의 브리프와 같은 형태를 가졌다.

근세에 이르러 속옷은 노출되면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었는데, 르네상스 시대에는 인체를 과장하던 모드 및 사치 금지령이 속옷에 까지 적용됨으로써 시대적 배경이 남자 속옷에도 영향을 미쳤다. 그리고 남녀 속옷은 모두 신분 표시와 성적 매력을 나타내었다. 셔츠는 초기에 수평으로된 낮은 목둘레선

으로 인하여 어깨 넓이가 강조되어 남성미를 나타내었고 후기에는 높아진 목둘레선과 거대한 목장식이 신분 표시로 이용되었다.

바로크 시대에는 남녀 속옷의 기능이 분리되는 획기적인 변화가 이루어졌다. 즉 여자는 성적 매력을 위하여 속옷을 착용한 반면에 남자는 신분 표시를 위하여 속옷을 착용하였다. 특히 남자의 경우 겉옷이 짧아짐에 따라 셔츠의 노출이 두드러져 셔츠가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었다.

로코코 시대에는 겉옷의 영향이 속옷에까지 미쳐 드로워즈의 경우, 밀착되어 착용되었으며 셔츠의 노출과 브리치즈 안에 착용된 속옷의 비노출이라는 복합적인 면을 지녔다. 또한 다른 시기보다 성적 매력을 위하여 속옷이 많이 사용되었다. 바로크 시대와 로코코 시대의 경우 겉옷을 통하여 셔츠가 노출되는 상황은 같았지만 시대에 따라 속옷이 가지는 기능은 달랐으며, 같은 용어라도 시대와 성(性)에 따라 다른 개념이 적용되었다.

남성 속옷의 역사를 통하여 속옷도 겉옷과 마찬가지로 항상 사회적 환경의 영향을 받고 있으며, 겉옷에 따라 속옷의 노출이나 밀착 정도가 달라지므로 속옷과 겉옷은 불가분의 관계임을 알 수 있다. 중세를 제외하고는 고대에서 근세까지 남성 속옷은 신분 표시의 기능을 공통적으로 유지함으로써 남성 속옷이 갖는 신분 표시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근세에는 신분 표시 외에 형태 유지나 선정적인 기능이 속옷의 새로운 기능으로 적용되었다.

그러므로 앞으로 남자 속옷의 디자인은 실용적 기능 외에 남성미를 나타내는 디자인이라든지 남자 의 사회적 위치를 과시할 수 있는 디자인에 역점을 두어야 하며 이외에 위생적이고 고급스런 소재도 개발하여 다양한 디자인으로 설계할 필요성이 있어야 할 것이다.

#### 참 고 문 헌

- 1) 류숙희(1993), 면/폴리에스테르 양면 이중 편성물 내의 착용감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 2) 인명희(1992), Double Wearing법에 따른 無塵 속옷

- 착용체계와 착용감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 3) 최 원(1994), 서양 속옷을 응용한 의복디자인. "속옷의 걸옷화"현상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 4) 이상례(1997), 세기말 현상으로 본 속옷의 걸옷화 현상, 한국복식학회, 35호: 325-342.
  - 5) 有馬澄子(1996), Infra-Apparelと現代衣生活, 衣生活研究會, 39(6): 10-15.
  - 6) 김주애(1985), 女子 속옷의 變遷에 관한 研究, 慶尙大學校 석사논문.
  - 7) 오경숙(1985), Undergarment의 變遷史的 考察, 誠信女大 석사논문.
  - 8) 정복희(1986), 西洋服 內衣의 變遷에 관한 研究, 淑明女大 석사논문.
  - 9) 윤진아(1995), 근세시대의 서양여자 속옷에 관한 고찰, 誠信女大 석사논문.
  - 10) 김주애(1997), 시대 변천에 따른 속옷에 관한 연구 (I), 服飾文化研究, 5(4): 12-31.
  - 11) 김주애(1998), 시대 변천에 따른 속옷에 관한 연구 (II), 服飾文化研究, 6(1): 136-148.
  - 12) 김주애(1998), 르네상스시대의 남성 속옷에 관한 고찰, 服飾, 40호: 171-180
  - 13) C. Willett and Phillis Cunninton(1992), The History of Underclothes, Dover: 21.
  - 14) 青木英夫(1991), 下着の流行史, 雄山閣: 13-22.
  - 15) 小川安朗(1981), 服飾 遷の原則, 文化出版局: 154.
  - 16) Elizabeth Ewing(1981), Dress and Undress, Drama Book: 11-24.
  - 17) 日本纖維製品消費科學會編(1975), 纖維製品消費科學 핸드ブック, 光生館: 338.
  - 18) 小川安朗(1990), 服飾敎本, 光生館: 7.
  - 19) 漢語大辭典編輯委員會(1993), 漢語大辭典出版社: 1001.
  - 20) 中文大辭典編纂委員會, 民國72年, 中文大辭典, 中國文化大學印行: 651-652.
  - 21) 漢語大辭典編輯委員會(1993), 漢語大辭典, 漢語大辭典出版社: 1001.
  - 22) 民衆書館編纂局(1996), 漢韓大辭典, 民衆書林: 1113.
  - 23) C. Willett and Phillis Cunningham(1992), 위의 책: 14-18.
  - 24) Blanche Payne(1965), History of Costume, Harper and Row: 335.
  - 25) 신상욱(1995), 西洋服飾史, 修學社: 81
  - 26) Jennifer Ruby(1996), Underwear, Batsford: 4.
  - 27) Phyllis G. Torrtora, Keith Eubank, 1995, Survey of Historic Costume, Fairchild Pub.: 57.